

2023년 11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9월호

2023년 8월호



2023년 8월호 [창간호] | (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 www.hiright.net | 1599-9660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담은

8월부터 매달 <월간 하이라이트>가 발행됩니다.

‘하이라이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권을 높인다” (High-Right) 는 뜻을 담았습니다.



특성화고 차별 바꾸기 위해 ✨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이 간다 ✨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이 6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22명의 특성화고 학생 기자단 학생들은 특성화고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기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증을 전달하고, 서로 알아가는 레크리에이션과 6월 기사 주제를 위한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사, 유튜브,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성화고 소식, 학생들의 이야기를 알려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 전달 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바란다!

자격증 비용 지원금, “있었는데도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자격증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원금이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격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뷰티과 학생이 말하는 자격증 이야기](#)

_이다현(서서울생활과학고2)

▶ [마음 편히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_김효진(목포중앙고3)

같은 고등학생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유독 대입으로 가는 문이 너무 좁아요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생각하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 ‘디폴트’인 일반계고에 비해 [특성화고에서의 대학 진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계고에 비해 정보도 없고 특성화고는 말그대로 취업이 ‘디폴트’이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다 ‘선취업 후진학’](#)

_한희주(한국관광고2)

▶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안하는 대입지원 3가지 정책](#)

_신성민(서울동산고2), 김성재(경기자동차과학고3)

학교까지 너무 먼데 교통비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성북구까지 매일 통학하는 한 특성화고 학생이 있습니다. 기숙사도 없는 학교라 매일 2시간씩 통학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 [우리에게 교통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_권다솔 (서울동구고2)

실습할 때 너무 무서운데 안전복, 안전화는 너무 비싸대요👁️👁️

공업계열 특성화고는 실습을 하면서 안전장비가 필수입니다. 학생들은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안전 장비는 비용이 든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공고 학생 당사자가 이야기합니다.

▶ [공고 학생 “실습할 때 너무 무서워요” VS 학교 “안전복, 안전화 다 사기엔 비용 너무 많이 들어”](#)
_전중찬 (안양공업고2)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 특성화고 있는데 이제 더이상 고졸을 뽑지 않아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로 특성화고에 옵니다. 한 학교에서는 대기업 취직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특성화고에 왔지만 정작 올해부터 해당 대기업은 고졸 채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2년동안 열심히 그 기업만 바라보며 취업을 준비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목표 잃은 특성화고 학생 “가고 싶은 기업이 고졸 채용을 하지 않아요”](#) _익명 작성

특성화고 학생이 바라보는 특성화고

우리 특성화고 자랑

- 삼일공고 자랑
 - [3D융합콘텐츠과 2학년 이진호/박한재](#)
- 서울동구고 자랑
 - [국제비즈니스과 2학년 권다솔](#)
- 서서울생활과학고 자랑
 - [뷰티과 2학년 이다현](#)
- 서울방송고 자랑
 - [방송시스템과 2학년 김준희](#)
- 안양공고 자랑
 - [스마트팩토리기계과 2학년 전중찬](#)
- 한국관광고 자랑
 - [관광일본어통역과 2학년 한희주](#)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고 장단점

- 다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필요합니다
 - [평택청담고 부사관과 2학년 김명랑](#)
- 납땜을 해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기자동차과학고 자동차IT과 3학년 김성재](#)
-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성화고
 - [목포중앙고 방송영상과 3학년 김선우](#)

특성화고에 온 이유

- 간호사 되기 위해 일반계고 아닌 특성화고 선택한 이유
 - [서울동산고 보건간호과 2학년 신성민](#)
 - 영화감독 꿈꾼 내가 공고에 온 이유
 -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3학년 백승도](#)
- 특성화고 다니지 1년도 안됐지만 잘 왔다고 생각해요
 - [한강미디어고 방송미디어과 1학년 오주은](#)
 - 예능PD 꿈꾸는 내가 상업계열 학교에 간 이유
 - [구미여상 서비스마케팅과 2학년 오은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특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은 많은 교사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되었다며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 인권에 대한 내용이니깐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본질은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사와 학생이 “어른 과 아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 학생이라면 그리고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정하고 또 폐지하려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구시대적인 정책이라 봅니다.

🗣️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교사인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건 교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들려요. 학생들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갑질과 폭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

월간 하이라이트 구독하기